



이 란

이란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전환기를 맞은 이란의 금융산업

회교혁명 이후 은행 국유화¹⁾로 인한 비효율과 정부의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이란의 금융산업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란 정부는 민간은행 설립과 국영은행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난 해 3개의 민간은행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금년 3월 이전의 영업 개시를 목표로 또 다른 민간은행이 준비중에 있다. 현재 이란의 금융시장은 10여 개의 주요 국영은행이 지배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은행과 국영은행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유화로 인한 은행간 경쟁의 부재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²⁾ 실제로 이란 은행들은 보유자산의 76%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란의 금융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외국은행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폐쇄적이고, 대내적으로는 국영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전산 등 정보기술 부문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지난해 영국의 Banker誌 조사에 의하면,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된 이란의 상업은행은 Bank Melli, Bank Saderat, Bank Mellat 등 6개에 불과하였다. 이란 최대의 은행인 Bank Melli는 1928년에 Banque Nationale de Perse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43년에 현재의 이름으

- 1) 1979년의 회교혁명 이전 이란의 금융시장은 국영은행, 민간은행, 합작은행, 외국은행 등 36개의 은행이 영업하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자유경쟁 시장이었으나, 1979년 5월 혁명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여 6개의 상업은행과 3개의 특수은행으로 재편하였다.
- 2) 이란 은행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영업관행인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를 주고받을 수 없어, 이란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즉, 은행들은 이익의 극대화보다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정부정책의 준수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음.

<표>

이란의 국영 상업은행

단위: 백만 달러, %

은행명	자본금 ¹⁾	총자산	수익(세전)	ROE ²⁾	ROA
Bank Melli Iran	1,313 (232)	52,299	60	6.0	0.11
Bank Saderat Iran	1,244 (247)	34,840	353	40.3	1.01
Bank of Industry and Mine	952 (304)	2,986	185	31.9	6.19
Bank Tejarat	746 (366)	22,502	67	11.7	0.30
Bank Mellat	739 (370)	23,479	275	49.1	1.17
Bank Sepah	633 (424)	18,011	29	6.8	0.16

주: 1. 괄호안은 The Banker지 세계 1,000대 은행 순위.

2. 평균자본금 기준.

자료: The Banker, 2002, 7.

로 변경하였는데, 규모면에서는 이란 제1의 은행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Bank Saderat, Bank Mellat 등에 뒤지고 있다. 이란 은행들은 그 동안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영업활동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수익성을 중시하는 추세이다.

Bank Saderat는 1952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3월 현재 총자산 348억 달러 규모의 대형 상업은행이다. Bank of Industry & Mine은 1979년 Industrial Credit Bank, Industrial and Mining Development Bank, Development & Investment Bank 등 4개 금융기관이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Bank Sepah와 Bank Tejarat는 각각 1925년 및 1979년에 설립된 상업은행들이다.

민간은행의 설립으로 금융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이란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란의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1997년 하타미 현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비로소 금융 부문의 개혁이 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란 정부는 현재까지 4개의 민간은행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추가로 4건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민간은행들은 국영은행들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확보에 주력할 것이므로, 향후 민간은행의 영업실적이 우수하여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민간은행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은행들은 현금인출기 설치, 현금카드 발급 등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무선통신 수단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존의 국영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구나 민간은행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영은행들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은행들의 제한된 자본금 규모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기존의 국영은행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금융산업 변화의 시작은 1997년의 비은행 여신금융기관(Non-banking Credit Institutions: NBCIs)의 설립 허가였다. 이란 정부는 NBCIs로 하여금 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란 금융당국이 NBCIs가 국영은행보다 최고 3% 더 높은 예금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BCIs의 영업실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란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되는데, NBCIs에서는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고객의 수표발행이 불가능하고 외화환전 업무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3개의 NBCIs가 민간은행으로 전환되었는데, Bank Karafarin, Bank Eqtesade-e Novin, Bank Parsian이 그러한 은행들이다. 최근 이란 중앙은행은 네 번째 민간은행으로 Saman Eqtesade의 영업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란에서 민간은행 설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① 2,000억 리알(2,500만 달러)의 최소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② 이사회 구성이 이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은행 지분을 전부 민간이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간은행의 성공 여부는 이들이 전통적인 여수신 업무에서 탈피하여 업무영역과 금융상품을 얼마나 다양화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이 Bank Karafarin인데, 최근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여 업무 다각화에 노력하는 한편, 보험 분야에도 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란 정부의 은행 부문 개혁의 핵심은 민간은행 설립과 더불어 국영은행을 민영화하는 데 있다. Bank Saderat와 Bank Refah-e Kargaran 등 2개 국영은행이 현재 민영화 대상 은행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러한 은행 부문 개혁은 이란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개혁 성공의 열쇠다. 특히, 국영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년 내에 국영은행이 민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은 국영은행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은행 설립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독점 운영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외국계 은행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

이란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을 위해 2001년 은행업 가이드라인³⁾을 제정하여, 외국은행들이 Kish, Qushm,

3) 은행업 가이드라인은 1972년에 제정된 은행법과 1984년의 무이자 은행법 및 1999년의 자유무역지대 행정법에 기초하여, 2000년 9월 통화신용위원회(Currency and Credit Council)의 의결을 거쳐 2001년에 제정되었음. 동 가이드라인은 이란의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은행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 105개 조항과 41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Chabaha 등 자유무역지대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처음에는 외국은행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나,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거래가 주로 무역거래이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은행들의 투자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외국은행들이 자유무역지대뿐만 아니라 이란 국내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지점 설치 허용 이전에는 외국은행들이 사무소 형태로만 이란에 진출할 수 있었다. 몇몇 외국은행의 사무소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무소는 조사와 연락 업무 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현재 이란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유럽계 은행이 대부분으로, 프랑스의 BNP Paribas, Credit Agricole Indosuez, Credit Lyonnais, 독일의 Deutsche Bank, Hypovereinsbank, 영국의 HSBC, Lloyds-TSB 등이다. 최근 외국계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는데, 일각에서는 2003년에 이란 금융당국이 모든 분야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계 민간은행 설립을 최초로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로 몇몇 국제투자은행들은 서면으로 은행 설립 의사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였으

며, 이란 중앙은행은 1~2개의 외국계 은행에 대해 지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은행이 최초로 이란에 영업점을 설치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도 걸프지역 내의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최초로 이란에 영업점을 설치하게 될 외국은행은 걸프 지역에 있는 은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란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금융, 소매금융, 투자은행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금융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소매금융 분야는 기존의 이란 현지은행들이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신규로 진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미개척 분야인 기업금융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 이란의 원유·가스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투자법⁴⁾이 개정되어 외국기업들도 이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란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수 영】

4)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FIPPA). 동법의 개정은 개혁파가 지배하는 의회와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헌법수호위원회간의 대립으로 1년이 넘도록 지연된 끝에 통과되었고, 시행령 발표로 2003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동법은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